

■ 서평

‘한국 근·현대시론사’의 기초를 다지는 연구

—김병택, 『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학교출판부, 1999)

양 영 길 ·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은, 그 동안 잡지사적 측면이거나 유평사적 측면, 또는 사조사적 측면으로 서술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 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문학사가 서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학사들 대부분이 작품론이거나 작품 경향의 흐름을 좇는 시평적 서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에 제대로 된 ‘한국 근·현대시사(詩史)’ 한 권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지나친 편견일까. 제대로 된 시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시론’의 전개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번에 김병택이 내놓은 『한국 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현대시론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저술이다. 이 책에서는 첫째 ‘1920년대 시론’에 대한 여러 관점, 둘째 근대시의 출발점에서 시작된 수용사 내지는 영향사적 측면의 ‘상징주의 시론’과 ‘박용철 시론’ 그리고 1920년대 시론과 서구 시론의 수용 등을 통해서 이룩한 1930년대 시론으로 김기림, 임화 등의 시론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론의 탐구, 특히 일제 강점기의 시론에 대한 탐구는 한국 근·현대시사 서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시사 서술의 전제로 삼아야 할 영향사적 측면은 한국 근대문학의 불연속적 측면만을 내세워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도 이 저서를 통해서 반성해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야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영향사 또는 수용사적 측면의 논의를 거쳐 문학사를 연속적 안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점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적 수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연속적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적 요소들을 문학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한 형식과 방법의 수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저서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첫째 '1920년대 시론'에서 시를 인식하는 여러 관점이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동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한국 근대시론의 형성 과정을 구명하고 있는 점, 둘째 한국 근대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 '상징주의 시론'에서 상징주의가 한국 근대시에 어떻게 수용 전개되었는지, 또 전개 과정의 한계와 오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통사적 관점에서 살피고 있는 점, 셋째 '박용철 시론'에서 서구 시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박용철 시의 시적 변용과 형성 과정 등을 구명하고 있는 점, 넷째 1920년대 시론을 바탕으로 성장한 김기림과 임화의 1930년대 시론을 살피고 있는 점 등으로 일제 강점기 시론들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 근대문학 비평사'나 '한국 근대시사' 서술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국 근대시론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근대시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논의들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시론 연구는 단편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즉 시인론이나 작품론에 치우쳐 있어서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시론을 세부적,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 현대시론이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1920년대 시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없이는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사실 한국 시단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작품론, 시론, 시

사, 창작론 등이 각각 따로 흩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시론사이거나 시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문학사 서술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제대로 성숙되고 있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때마른 역사 연구의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역사 연구가 단 순히 과거에 대한 사건사에 머물고 마는 경우, 그것은 역사의 표층의 한 단면 가운데에서 극히 그 일부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심층을 살펴보면, 그 심층은 하나의 자장(磁場)을 이루고 여기에 힘이 모아지고 그것이 현재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게 하는 살아 있는 역사이다. 이러한 문학사의 심층을 염두에 둘 때, 김병택의 이 연구는 하나의 자장을 이루어 작품론과 시론, 시사, 창작론 등을 모여들게 만드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론사에 대한 재조명은 새 천년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병택은 이미 1986년 『바벨탑의 언어』(문학예술사), 1988년 『한국근대시론연구』(민지사), 1995년 『한국현대시인론』(국학자료원)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이은 『한국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 등 일련의 저서들은 ‘한국 근·현대시론사’를 위한 근간을 다지는 작업인 듯하다.